

왕실 보물 뜨거운 관심...막바지 관람 열기



무굴 제국 아우랑제브황제의 왕좌.

8일 폐막하는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관람객 3만명 넘겨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중

최다 유료 관람객 동원

드레스덴박물관 소장품

강건왕 군복 가장 인기

전시 연계 특별강연

다양한 이벤트도 흥미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순회 특별전'이 오는 8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바르코 미술 정수를 맛보려는 막바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지역 순회 국립박물관 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까지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은 3만23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달 29일자로 3만 관람객을 돌파해 지역민들의 독일 왕실 유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영희 학예사는 "독일 바로크 유물 전시가 광주에서는 처음 열린 데다, 일반인이 보기 힘든 유물이 대거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전시에서 출품되지 못한 다른 대표작들은 초대형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개막했던 '왕이 사랑한 보물'전은 준비 기간만 1년 6개월, 전시품 보험료가 813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급 전시였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을 대표하는 그린볼트박물관, 무기박

물관, 도자기박물관의 소장품 130점을 엄선했다. 모두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크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의 왕 '강건왕 아우구스투스'(1670~1733)가 제작하고 수집한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전시장을 주로 찾은 관람객은 학생들과 복지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풍암초(100명), 학운초(100명), 광주사랑 나눔봉사회(50명), 희망의집(50명) 등 단체 관람객이 약 60%, 개인 관람객이 40%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전시 기간이 겨울 방학과 맞물려 어린이 체험학습을 위해 박물관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 애호가뿐 아니라 데이트를 나온 젊은 커플들, 겨울철 단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 2, 3월에 전시와 연계된 특별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져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18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미술 교류-드레스덴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18세기 드레스덴 궁정 음악과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바흐', '동아시아의 무역 도자와 마이센 도자-유럽 경질자기의 탄생' 등 강연과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를 주제로 카메라타 안티코의 연주회도 열렸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유물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군복이었다. 김영희 학예사는 "유물에 얽힌 스토리를 관람객들이 좋아했다. 특히 강건왕이 전장에서 스웨덴 병사들에게 군복을 빼앗긴 후 돌려받는 과정을 흥미롭게 들었다"며 "강건왕 의복의 목 부위가 없는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재위 시대의 대작 중 하나인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왕좌'의 확대사진도 시각적인 충격을 선사한 유물이다. 많은 관람객들이 확대된 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물관은 오는 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근대의 대표적인 금어(金魚·단정이나 불화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는 승려), 금융 일섭(金齋 日燮, 1900~1975)에 대한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 근대기 사찰 불사의 면면을 소개할 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을 초청해 금융 일섭의 작품 활동이 근대 불교미술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전시실 전경.

박정일 초대전

6일~30일 갤러리 미담



'봄-먼 곳을 응시하다'

서양화가 박정일은 '새'를 소재로 작업한다. 다양한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새는 작가 자신의 아바타이자 인간의 표상으로 자유 정신과 초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가 그려내는 새가 자리하는 곳은 추상화된 풍경 속에서.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외롭게 앉아 있기도 하고, 나무구멍터기 등 곳곳에 무리지어 자리하기도 한다.

박정일 작가 초대 개인전이 개인전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갤러리 미담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8년

신작 등 13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채로운 색감의 풍경 속에 등장하는 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을 응시하는 무기력한 존재인 현대인들에 대한 연민이며 절망과 희망이기도 하다.

조선대 순수미술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박정일은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시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으며 그룹 새벽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70-7766-7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이정주씨 대통령상

김해전국가야금경연 병창 부문



"가야금과 관객 사이에서 소통하는 연주자가 되어 광주 국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립창극단원 이정주(상임단원·사진)씨가 국내 최대 가야금대회인 제28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가야금 병창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김해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6명이 참가했다.

이 단원은 지난 30일 '적벽가' 중 '화룡도'로 예선을 통과했고 31일 본선에서는 '흥보가' 중 '구만리~제비노정기 대목'으로 심사위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명자, 강정숙 선생의 사사를 받은 이 단원은

전남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석사를 수료했으며, 제8회 장흥 가무악 전국대회 가야금병창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광주시립창극단 상임 단원과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겸임교수로 활발한 국악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 단원은 "큰 상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회를 준비하며 의무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교육자로서도 광주시립창극단원으로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강숙자오페라라인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의 '봄과 사랑의 시를 노래하다'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월요콘서트에서 강숙자오페라라인은 아름다운 시에 서정적인 곡조를 붙인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지금 봄', '수선화', '청산에 살리라', '진달래꽃' 등 사랑의 설렘이 담긴 곡들은 관객에게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은 2001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

오페라 및 갈라 콘서트, 뮤지컬,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공연을 수백 회 기획 공연했다. 이날 공연은 강숙자, 사윤정, 정수희, 고수연, 윤한나(이상 소프라노), 김정규, 이상화(이상 테너), 길경호(바리톤)가 출연한다.

입장료 5000원. 문의 062-670-794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소확행

트렌드

확신

북간 5주년 - 발행인의 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시상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

남만,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매양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출판도시(4) - 소용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폴리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문화원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티븐 vs. 멜릭

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나무 사이로
분화꽃의 생태도시
다양한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품으로
담양식 데자갈비, 떡갈비